『우리는 왜 고통 받는가?』

Why do we suffer?: a scriptural approach to the human condition

Daniel J. Harrington. S.J.: A Sheed & Ward Book, 2002

강 선 남

서강대학교, 성서학

인간 고통에 의해 제기되는 신학적 문제는 일반적으로 ‘신정론(Theodicy)’이라고 불린다. 그리스어로 ‘하느님(θεός)’과 ‘정의(δίκη)’를 뜻하는 말에서 온, 신정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를 함께 주장하려는 시도이다. 첫째,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둘째, 하느님은 공정하시다. 셋째, 사람들은 고통 받는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면, 전능하고 공정하신 하느님이 어떻게 고통, 특별히 무죄한 이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면서, ‘신정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라이프니츠(G.W. Leibniz 1646-1710)는 ‘세상에 고통이 있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전능하고 공정하시다.’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로 이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감리교 목사 아버지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인생 대부분을 무신론의 유명한 철학자로 살아왔던 플루(A. Flew 1923-2010)는 이 세상의 고통 문제와 관련하여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웠음을 고백한다. 전능하며 절대 선인 신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전능하고 완전히 선한 신의 개념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였다. 인생 말년에 이르러 플루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며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돌아서며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이르지만, 그가 생각하는 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 곧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신이다. 플루는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을 믿기에는 여전히 악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세상의 ‘고통’이라는 문제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신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임을 알려준다.

저명한 성경학자인 헤링톤(Daniel J. Harrington) 역시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자신의 책 *Why do we suffer?: a scriptural approach to the human condition*(우리는 왜 고통 받는가? 성경의 접근 방법)에서 “고통이 인간존재의 일부이지만, 위협적이고 도전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의 성경은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고통에 대하여 한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성경 저자들은 여러 가지 고통, 곧 육체적이거나 정신적 혹은 물질적이거나 사회 구조적인 고통을 소개하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각각의 접근 방법이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지만, 이들 가운데 아무것도 그것 자체로 온전히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저자 헤링톤 역시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에 명확한 답이나 해결책을 주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고통을 겪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고 다루고 있는지를 읽으며 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위로와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저자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머니가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고통’이라는 주제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의 해 왔지만 성경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 또한 그에 대한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도 고백한다. 그럼에도 고통에 관한 성경의 여러 접근에 친숙해 지는 것이 고

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사랑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학자답게 헤링톤은 이 책에서 신구약성경에 나타난 고통에 대한 여러 접근방법을 소개하며 관련 성경본문을 간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고통문제와 더불어 성경 각 권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독자들이 성경 전반에 관한 기초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책은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성경을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저자 스스로 자신의 책을 정의한다.

그러면 이제 헤링톤이 소개하는 성경에 나타난 고통의 여러 접근방법과 만나 보자.

1. 이 책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접근 방법은 구약성경 시편에서 고통에 대한 여러 노래들이 제안하는 것이다. 그 시편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였는지를 그려준다(Coping with suffering: The lament Psalms, 1-14). 저자는 여기에서 ‘마주하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시편의 탄식시편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너무 수동성을 암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들 시편은 능동성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편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불평과 하소연, 그리고 자주 하느님이 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질책에 가까운 도전이 들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시편 시인들이 부르짖는 이러한 불평과 탄원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신뢰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왜 납니까? 왜?’라는 질문은 거의 모든 고통 경험에서 나오는 외침이다. 또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제기된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는 강한 본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잘못된 죄의식을 갖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된다. 고통의 원인에 관한 우리의 질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대답들 가운데 하나는 ‘인과응보의 법칙(The Law of Retribution 15-29)’이다. 곧, 의로운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신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이스라엘의 고대 현자들이 제시한

실질적인 증거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헤링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로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 경험상 많은 경우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 ‘죄를 저지른 사람은 결국 끝이 좋지 않지만 의로운 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것’이 진리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 그러나 저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모든 경우에 진리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 안에도 큰 문제가 있다. 특히 욥기의 경우에, 이 논리를 가지고 의인 욥이 경험한 고통의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The Mystery of suffering: The book of Job 31-50). 욥기 어디에서도 그가 겪은 고통의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욥기에서 고통은 하나의 신비로 남는다. 따라서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성경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성경의 여러 접근 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헤링톤은 지적한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인식이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할 때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된다. 마찬가지로, 고통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적으로 만들 때, 그 반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끝나지 않는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인간의 고통을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하나는 희생이라는 개념이다 (Suffering and Sacrifice 53-68).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현장에서 죽었을 때,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한다. 성경에는 고통과 죽음을 의미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희생이라는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온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에게 희생은 다른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이나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지만, 성경시대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희생제물은 그들의 실제 경험의 일부였다. 사람들은 동물과 곡식과 포도주의 첫 수확, 그리고 다른 제물을 성전의 제단에 봉헌하였다. 희생제물 봉헌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과 하느님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거나 참회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대를 걸쳐 끔찍

한 고통을 영웅적으로 견디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이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한 희생제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5. 헤링톤이 소개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유다교의 묵시문학적 해결방법(The Apocalyptic Solution 71-86)은 다음 세 가지 전제를 가능하게 했다. 곧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하느님은 공정하시다, 그리고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여기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강력하게 유지되지만, 그것이 실행되는 시점은 현재가 아니다. 이 사고는 현재의 고통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희망에 근거하는데, 이 일의 성취는 우주의 통치자인 하느님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벌을 받거나 근절될 것이라는 염원과 기대이다. 이 접근방법은 현재의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을 하느님의 신비한 계획으로 돌리거나 역사에서 악의 세력이 지금은 맹위를 떨치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의 통제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며 하느님의 주권을 지켜낸다.

6. 이어서 저자는 구약성경의 고통의 조명을 넘어 신약성경으로 건너간다. 신약성경 저자들에 의하면, 예수의 공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의미하였다(Jesus and the Kingdom of God 89-105). 예수의 가르침과 수난 이야기 이외에, 복음서들은 예수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예수가 여러 가지 형태의 육체적 질병이나 만성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고쳐준 이야기들이다. 병을 앓거나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예수는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힘을 보여주었다. 한편 그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선포와 치유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을 수용하라고 말한다. 곤경에 처해 어찌할 줄 모르기보다, 그의 제자들은 하느님 나라에 헌신하는 의미로 그 어려움들을 넘어설 것을 요청받는다. 더 높은 이상에 그들의 고통을 종속시키며, 그들은 현재의 고통을 올바른 전망 안에 놓을 수 있다. 예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파스카 신비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리고 파스카 신비의 핵심에는 고통이라는 주제가 자리하고 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맥락에서 예수의 수난이 커다란 중요성을 지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의 고난은

그의 승리를 위한 전주였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즐기며, 의화와 성결과 구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헤링톤은 말한다. “만일 예수의 고난이 그러한 중요성을 지녔다면, 우리의 고통 역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7. 예수를 메시아,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영웅이 붙잡혀서 심문받고 주후 30년 예루살렘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사실에 맞닥뜨려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의 고통을 구약성경을 성취하는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라고 해석하였다(참조. 1코린 15,3-5). 이러한 해석의 기초에는 성 금요일의 예수의 죽음과, 예수가 부활절 일요일에 죽음에서 일으켜졌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Death and Resurrection 107-121).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예수의 경우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초기 찬가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만이(골로 1,18)”이다. 그렇지만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는 아주 풍부한 성경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구약성경의 후대 책들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그 배경의 중앙에는 고통의 신비가 자리하고 있다. 집회서가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전통적이며 일종의 운명론적인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마카베오 2서와 지혜서는 죽음 뒤의 삶을 통한 무죄한 고통의 극복에 대한 희망을 붙잡고 있다. 한편 마카베오 2서가 죽음 뒤의 물리적인 존재의 차원(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반면에, 지혜서는 영적 차원(의인의 영혼)을 부각시킨다. 두 책 모두 의인이 겪는 현재의 고통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에 의해 극복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8. 마지막으로 헤링톤은 바오로 서간과 사도행전,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베드로의 첫째 서간, 요한 묵시록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고통에 관한 사목적이며 신학적인 응답으로 소개한다(Suffering for the Gospel 123-140). 이들 신약성경 본문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파스카 신비의 빛 안에서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견디어냈는지를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방인들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오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였

는데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육체적, 영적 고통을 겪었다. 태생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수신지인 로마 그리스도인 같은 유대인들은 예수에 관한 신앙이 점차 배척당하자, 전통적인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혈족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여야 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의 수신지인 소아시아 북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웃들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 결과 자신들의 ‘다른’ 신앙과 행동방식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다. 소아시아 서쪽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종교에 참여하는 것을 한분이신 하느님과 주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타협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거부하자, 결과적으로 박해와 그 이상의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요한 묵시록에 묘사되어있다. 그런데 이들 서로 다른 책들을 묶어주는 것은 고통 가운데 희망의 모범이며 원천으로서 예수라는 인물이며, 이 책들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의 희망의 토대이며 현재의 인내의 기초가 된다.

헤링톤의 이 책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고통에 관해 알고 싶은, 그리고 성경에서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관심 있는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저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경의 고통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뼈대를 보기 좋게 조형해 놓는 한편, 자신의 통찰력과 이해에서 나온 설명으로 살을 덧붙여 놓았다. 성경의 고통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명확한 설명은 이 책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으뜸가는 장점이라 하겠다. 읽는 이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분량으로 성경 연구자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 모두 부담 없이 손에 들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헤링톤은 독자들이 자신의 책을 읽는 수고, ‘고통’을 느끼도록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간결성은 독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소개한 내용을 스스로 심화시키라는 초대 의미이기도 하다. 심층적인 접근과 이해를 원하는 이들은 이 책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끝에 저자가 마련한 ‘묵상, 토론, 기도를 위한 질문들(Questions for Reflection, Discussion, and Prayer)’은 독자들이 이 책을 눈으로 읽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 문제를 숙고하며 자신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서 값진 열매 맺기를 촉구한다. 이 부분에서 특히 좋은 점은

저자가 각 장에서 소개한 고통의 접근방법에 대한 ‘단일한 시각’이 지니는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각각의 접근방법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이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리하게 짚어 주며, 독자들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면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도록 이끈다. 예를 들어, 예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유시켜주면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었는데,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은 어떤 이들에게 희망의 원천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꺾는 말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 치유자들에게 가지만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의 부정적인 결과는 종종 죄책감이다. ‘나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는 ‘나는 신앙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헤링톤의 통찰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묵상, 토론, 기도를 위한 질문들’ 부분까지 꼼꼼히 읽고 소화시키는 독자들은 인간 실존의 문제인 고통의 의미를 끝까지 삼키려 들지 않고 천천히 되새김질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책에서 얻어가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